테크놀로지, 노동, 그리고 삶의 취약성*

채석진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초빙교수**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 진영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비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이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은 정보통신기술 시설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또한 노동의 유연화 및 분절화 과정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 글은 자율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 노동,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기원인 이탈리아 노동자주의의 '사회적 공장'과 '계급 구성' 개념을 살펴보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일군의 자율주의 이론가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동, 계급,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제국'과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비물질 노동' 개념이 문화연구 전통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창의노동(creative labour)' 개념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화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캐러티(prec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한 노동의 속성이 노동의 임시직화와 함께, 삶과 노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성의 확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취약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상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취약성의 문제를 특정 세대나 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KEYWORDS 사회적 공장, 비물질 노동, 프리캐리어트, 삶의 취약성, 프리 노동, 디지털 노동,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 이 논문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취약한 노동/삶과 그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간의 관계를 연구한 저자의 박사논문(Chae, 2016)의 일부를 번역・수정・보완해서 작성한 글이다. 이 논문의 초벌 원고는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stonyjin@gmail.com

1. 다시 '노동'으로

노동(labour)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데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자 자신의 존재를 사회에 새겨 넣는 과정이기도 하다(Sennett, 2008). 이렇듯, 문화연구의 핵심 연구 주제인 "문화", 즉 "삶의 방식(a way of life)"(Williams, 1961, p. 57)을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오랫동안 "문화연구의 맹점"으로 남아 있었다(Mosco, 2011, p. 230). 문화연구 분야 내에 지속되어온 경제-문화라는 이분법 속에서, 노동은 '문화'의 반대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경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고(Charusheela, 2011), 미디어연구 내에서 또한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에서 다루는 '소유권(ownership)'이나 문화연구적 접근에서 다루는 '소비(consumption)'와 비교해서 대단히 주변적인 문제였다(Terranova, 2000, p. 35). 로스(Ross, 2008)는 문화연구가 탄생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는데, 그에 따르면, 문화연구의 창시자인 윌리엄스(Williams)가 노동을 경시한 것은 한편으로는 당시 노동주의 좌파의 특징이었던 경제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시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케인시안(keynesian) 복지국가 체제에서 문화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경제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지난 십여 년간 문화연구 분야에서(좀 더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문화주의(culturalism)'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적 전환(economic turn)'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예컨대, Charusheela, 2011; Mosco, 2011; Palm, 2011; Ross, 2008). 이 연구들은 문화연구 내에서 지속되어온 문화/경제라는 이분법적인 가정에 도전하며, 경제 · 문화 · 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Barry & Slater, 2002; Charusheela, 2011).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전환'은 거대한 규모의 무급 노동력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는 후기 산업적 문화경제 내에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위치가 변화한 것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후기 포드주의에서 노동 과정이 소비 과정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감에 따라 경제적 생산 활동(노동)과 문화적 활동(놀이) 간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특히, 디지털 경제는 경제적 노동과 문화적 노동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대표적인 영역이다(예컨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은 해당 미디어 기업의 가치 창출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 활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놀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노동의 유연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려는 연구들 사이에서 '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ur)'과 '취약성(precarity)'은 현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과 삶의 속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주목받으며, 문화연구 진영에서 가장 유행하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비(Harvey, 2005)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은 정보통신기술 시설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는 또한 노동의 유연화 및 분절화 과정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이후 '자율주의') 진영에서 발전시킨 앞서 언급한 두 개념은 특히 신자유주의,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노동/삶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아왔다.

이 글은 자율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장과 노동/삶의 취약화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비물질 노동'과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이론적 맥락에서 진화해왔는지 고찰한다. 먼저 자율주의의 기원인 이탈리아 노동자주의의 '사회적 공장'과 '계급 구성'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제국'과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는지 기술한다.[1] 그 다음으로, '제국'과 '비물질 노동' 개념을 둘러싸고 진행된 이론적 논쟁들을 살펴보고, 이 개념들이 문화연구 전통에서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채택 · 수정 · 보완되어왔는지, 특히 '창의노동(creative labour)' 개념에 대한 비판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화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한 노동의 속성이 삶/노동의 불안정성 증가와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변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할 것이다.

이 두 개념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이미 상당히 축적된 상황에서 굳이 다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다. 첫째, 이 두 개념이 현대 정보적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노동, 주체성,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의 일부로 구성된 이론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연구에서 이 두 개념이 (학문적인 유행어로) 대단히 협소한 의미로 축소

1) 국내에 '비물질 노동'과 '제국'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노동자주의에서 구성한 '사회적 공장' 및 '계급 구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글이 지루해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논문에서 다시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았다.

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에 '디지털 노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탈바꿈한 '비물질 노동'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특정 노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취약성'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정되어 현재 사회의 새로운 하층 계급 혹은 노동 계급만의 문제로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됨에 따라, 전혀 다른 이론적 기반에서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들과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2] 둘째, 이 두 개념이 이론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쌍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리된 영역에서 전자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비물질성(immateriality)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그것의 물질성(materiality)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이 개념들이 서구 사회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노동, 계급, 사회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형성/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경향은 비물질 노동과 취약성의 문제가 청년세대의 문제로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한 국내의 관련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김예란, 2009; 2015; 박진우, 2011; 이희은, 2014).

이 글을 통해, 나는 일상의 비물질 노동이 삶의 취약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구성되는 것이고, 취약성의 문제가 특정 세대나 계급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계급을 관통하여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서구에서 진행된 첨예한 이론적 논쟁들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서 구성되는 새로운 노동과 삶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테크놀로지, 노동, 새로운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의 발전, 노동,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지배해왔다. 지배적 전통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기술의 발전이 산업사회의 계급 갈등과 투쟁이 사라진, 풍요와 안전성을 가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Bell, 1973; Drucker, 1957; Machlup, 1962). 이러한 전통의

2) 예를 들면, 비물질 노동, 문화 노동, 창의 노동, 디지털 노동 등의 개념들이 서로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취약성 개념에 기반을 두어 발전한 '프리캐리어트'라는 용어 또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노동 계급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계급 구분으로 사용되며(예, Standing, 2011), 2000년대 초반 논의되었던 '신빈곤층(new poor)' 혹은 '워킹푸어(working poor)' 개념과 교환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선구적 이론가인 벨(Bell)은 1970년대 초 마르크스주의가 쇠퇴하고 정보사회가 도래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행된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인 승리를 목격하며, 자본 계급에 의해 지배되었던 오래된 자본주의가 기술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자본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후기 산업 사회' 혹은 '지식 사회'라고 칭하였다(Bell, 1973). 벨은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잘 훈련된 과학 기술 노동자들"이 새로운 지식 계급을 구성할 것이며, 이 계급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과거 산업사회에 존재했던 계급 간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쇠퇴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다(Mckercher & Mosco, 2007, p. vii).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전통에서, 노동 과정(labour process) 이론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확장이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Braverman, 1974; Huws, 2003). 브레이버만(Braverman, 1974)은 새로운 기술의 확장과 더불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탈숙련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노동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시, 착취, 차별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Brophy, 2011; Brophy & Peuter, 2007).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페미니스트 노동 운동가이자 이론가인 휴즈(Huws, 2003, 2014)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은 비공식적인 노동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고단한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노동력이 기술의 부품으로 점점 더 파편화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휴즈는 정보 자본주의의 말단에 구성되는 계급을 '사이버타리아트(cybertariat)'라 칭하였다. 하지만, 다이어-위더포드(Dyer-Witheford)가 지적하듯,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진행되는 노동 소외현상에 초점을 맞춘 후자의 논리는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정보사회 유토피아론에 대항할 수 있는 비판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 노동 양식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와 더불어 극단적인 비관주의만을 생산한 채 다른 대안이나 가망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Dyer-Witheford, 1994, p. 87).

유토피아적인 정보 노동자 이론들과 디스토피아적인 노동 하락 이론에 대항하여, 혹은 두 이론의 중간 지점에서, 자율주의자들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자본의 착취를 확장시키는 도구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저항의 도구로서의 잠재력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능력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과 더

불어 저항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중적인 입장은 기술, 노동,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관한 자율주의의 초기 개념들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의의 이중적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초기 개념인 '사회적 공장'과 '계급 구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1) 새로운 사회: 사회적 공장 (The new social as social factory)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자율주의(autonomists)로 묶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은 자율주의의 기원인 이탈리아 노동자주의(*operasimo*, workerism)에서 구성한 사회, 기술, 노동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다.

노동자주의는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이탈리아의 사회적/정치적 운동의 변동과 함께 발전하였다. 보우링(Bowring, 2004)에 따르면, 195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 이론이 좌파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낙관주의와 조응하여, 그람시의 이론은 노동자 정당이 무정부주의적 노동조합주의(anarcho-syndicalism)를 거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장점을 수용하는 데에 기여했고, 이는 국가(the state)가 '국가적 연대와 사회주의적 재건을 위한 잠재적 힘을 가진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합의된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후 기독민주당의 십년간의 집권 동안에도 억압적인 입법이 지속되고 과거 파시즘 정권에서 일했던 수많은 행정 관료들이 여전히 살아남으면서, 이러한 정치적 합의는 곧 약화되었다. 이러한 1950~1960년대에 걸친 의회민주주의와 정치적 운동의 실험의 실패를 겪으면서, 1960년대 말에 비공산주의적이며(non-Communist), 초의회주의적인(extra- parliamentary) 좌파가 형성되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오페라이시모(*operaismo*), 즉 노동자주의(workerism)라고 지칭하였고, 이후 1970년대 오토노미아(*autonomia* 자율주의)로 발전하였다(Bowring, 2004, pp. 107~108).

노동자주의는 마르크스의 작업들을 다시 읽으며 정당 중심의 교조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마르크스의 글은 '직접적인 생산과정의 결과들(Results of the immediate process of production)'(Marx, 1976)과 〈정치경제학비판 요강(Grundrisse)〉(Marx, 1973)이었다.[3] 이 마르크스의 작업들을 기반으로 1960년대에서

3) 전자는 흔히 자본론의 'the missing chapter'라고 불리는데, 마르크스가 원래 자본론 1권의 7장으로 계획해서 썼으나 삭제되었다. 그 후 1933년 처음으로 모스코바에서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출판되었다. 이 글이 본격적으

1970년대 사이에 자율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형성되었다. 노동자주의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는 마르크스가 '실질적 포섭(real assumption)'이라고 불렀던 기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Thoburn, 2001, p. 77). '직접적인 생산과정의 결과들'에서, 마르크스는 초기 자본주의 공업에서 기계화에 기반을 둔 대규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잉여가치 양식이 '형식적 포섭(formal subsumption)'에서 '실질적 포섭(real subsumption)'으로 전환됨을 지적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초기 자본주의 공업 시기에, 잉여가치는 근무일('절대적' 잉여가치)을 늘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노동력의 물리적 한계와 노동 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잉여가치는 생산성(productivity)('상대적' 잉여가치)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다(Bowring, 2004, pp. 103～104). 마르크스는 이러한 전환이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Mandel, 1976). 마르크스는 실질적 포섭 단계에서 "대규모 산업의 기계 장치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노동과 사회적 생활 자체가 얽히고 통합되어 변형된다"(Thoburn, 2001, p.77)고 보았고,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단순한 협력기능으로 이미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수많은 기계와 기능적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화 과정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어, 시스템의 단순한 연결들로 굳어진다"(Marx, 1976, p. 692)고 주장한다.

노동자주의의 선구적 이론가인 트론티(Tronti)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활동들이 점점 더 자본화되는 현상을 목격하며, 마르크스의 '실질적 포섭' 개념으로 돌아가, '사회(the social)'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점점 더 복속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사회적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다.[4)]

> 자본주의적 발전이 진전될수록, 즉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모든 곳에 더 많이 침투할수록, 생산-분배-교환-소비 회로는 불가피하게 점점 더 발달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과 부르주아 사회의 관계, 공장과 사회의 관계, 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점점 더 유기적으로 변한다. … 사회적 관계들은 생산관계의 지점들이 되고, 사회 전체가 생산의 접합(articulation)이 되

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독일어와 다른 유럽어로 재출판되고 1976년 영어본 자본론 1권에 부록으로 추가된 이후이다(Marx, 1976, p. 943).

4)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the social)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칭한다. 하나는 제도로서의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다(Latour, 2005). '사회적 공장'에서 사회는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사회 개념으로 사용된다.

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사회가 공장의 역할을 하고, 공장은 사회 전체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확장한다(Tronti, 1962; Thoburn, 2001, p. 78 재인용).

이처럼 트론티는 '사회적 공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 활동들이 빠르게 자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생산에서 주변적이었던 영역들이 자본의 회로 속으로 긴밀하게 통합되면서 공장이 더 이상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특권적인 장소로 규정되기 어려워졌음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이후 네그리는 이를 '벽 없는 공장'으로 표현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단일한 하나로 구성되는 과정은 더 이상 사회적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정치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Thoburn, 2001, p. 78). (이는 네오 그람시주의자들이 사회 민주주의적 정치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인정한 것과 뚜렷하게 차별되는 지점이다.)

사회적 공장 이론은 이후 자율주의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더욱 정교화되었다. 〈여성의 권력과 공동체의 전복(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에서, 달라 코스타와 제임스(Dalla Costa & James, 1972)는 여성의 무급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며, 여성의 가정노동이 '재생산 노동'으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여성의 가사노동(육아 · 요리 · 소핑 · 교육 · 청소 · 간호 · 감정적 지지 등)이 '사회적 공장'에서, 핵심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사회적 공장 개념을 학생과 같은 다른 무급 집단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하였다(Dyer-Witheford, 1999, p. 67).

2) 계급 구성

노동자주의(operasimo)의 또 다른 혁신적인 이론은 '계급 구성(class composition)'이다. '사회적 공장' 개념이 현대 정보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착취의 확장을 강조하였다면, '계급 구성'은 이 속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의 가망성 또한 강조하는 것으로,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율주의 이론의 핵심적 토대를 이루는 개념이다.

트론티는 이탈리아 북부의 산업노동자운동(industrial shop-floor militancy)에 관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본주의 발달의 역학을 형성할 때 노동자의 저항이 자본주의의 역동을 구성하는 데에 행사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Tronti, 1964, 1972, 1973, 1980). 그는 "우리 또한 이제까지 자본주의적 발전을 앞에 두고 노동자들을 그 뒤에 놓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해왔다. 이것이 실수였다"(Tronti, 1964)고 지적하며, 자본주의 역사를 노동 계급이 자본 계급의 착취에서 벗어나려는 역학 관계가 아니라, "자본 계급이 노동 계급으로

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연속적인 시도"로 이론화한다. 즉,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저항에 부딪친 자본가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역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론티의 시각은 "자본이 산업 장비(industrial machinery) 사용을 강화시키게 된 초기 추동력은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노동자들의 운동에서부터 기인한다"는 마르크스의 관찰에 기반을 둔 것이다(Dyer-Witheford, 1999, p. 66). 노동시간 감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맞서, 자본은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저항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본의 움직임이 산업기술을 도입하게 만든 초기추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트론티는 자본주의 역사를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자본 계급의 연속된 도전"으로 이론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역사를 "자본의 구조적인 강제"(the unfolding structural imperatives of capital)로 인식한 전통적인 역사적 유물론적 시각에서 벗어난다(Bowring 2004, p. 104). 이 점에서, 트론티는 마르크스를 전통적인 역사적 유물론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결정론자가 아니라, 계급투쟁결정론자로 다시 재해석해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이후 자율주의자들(autonomists)의 계급 이론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어진다. 1980년대 이탈리아 정권의 극심한 탄압을 겪은 후, 네그리는 야심차게 노동자주의의 초기 이론들을 현대 자본주의의 계급 구성을 분석하는 데에 적용한다. 네그리는 노동이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되는 역사를 두 번의 계급 구성이 이루어진 세 번의 연속적인 단계로 구분한다(Bowring, 2004, pp. 105～106; Dyer-Witheford, 1999). 네그리의 도식에 따르면, 첫 번째 '대규모 산업(large-scale industry)' 단계는 1848년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로, 이 기간 동안 전체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있고, 생산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을 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이들이 러시아 의회공산주의의 핵심적 기반이 됨). 두 번째 포드주의 단계(1914～1968)에, 자본은 테일러리즘과 포드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전문가 노동자들'의 힘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생산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진 반면,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화되며, 노동은 구체적인 생산 활동에서 분리된다. 이 과정은 전문가 노동자를 '대중 노동자(mass worker)'로 대체하였다. 대중 노동자는 거대한 공장에 집중되어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준기술(semi-skilled)을 가진, 권력이 약화된 노동자 계급이다. 하지만 거대한 공장에 노동자들을 집중시킨 것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쉽게 조직화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자 정체성을 형성하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비인간적인 공장 일에 반대하는 파업과 태업 등을 통해 집단적인 저항을 이끈다. 네그리는 자본이 이러한

대중 노동자들의 힘이 커져가는 것을 고도의 전산화와 노동과정의 자동화를 통해서 통제하려는 시도 속에서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노동은 "완전히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지적인(abstract, immaterial, and intellectual)"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좌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투쟁의 종말로 인식했지만, 네그리는 대중 노동자의 종말이 새로운 혁명적 주체인 '사회적 노동자(socialized worker)'[이후에 다중(multitude) 개념으로 발전]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도화된 전산화와 자동화라는 조건은 노동의 가치 하락 및 감시의 강화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이 속에서 새로운 노동자 계급 및 주체가 형성되며 이들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역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Dyer-Witheford, 1999).

3. 정보적 글로벌 자본주의: 새로운 제국과 노동?

정보 자본주의에서의 새로운 노동 계급의 출현과 정보통신기술의 관계에 관한 자율주의 이론은 하트와 네그리(Hardt & Negri)의 〈제국(Empire)〉(2000)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자율주의 논의가 문화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이 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다. 〈제국〉에서 하트와 네그리는 자율주의 이론들(사회적 공장, 계급 구성)에 들뢰즈(Deleuze), 가타리(Guattari), 푸코(Michel Foucault)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의 철학자들의 작업을 결합하여(Dyer-Witheford & de Peuter, 2009, pp. xix~xx), 21세기 세계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노동의 속성, 그에 따른 주체성의 구성, 및 투쟁 양식의 변화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트와 네그리는 '사회적 공장' 개념을 확장하여, 전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의 출현을 주장한다. 이 새로운 제국은 '경제적, 행정적, 군사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결합하여 탄생한 "외부가 없는" 권력 체계'로, 로마 제국과 같은 이전 제국이 도로를 사용해서 지리적 영역을 확장하였다면, 새로운 제국은 디지털 네크워크 연결을 통해 제국의 사회적 영역을 확장하고, 푸코의 생체권력(biopower)을 통해 작동하며 제국 전체에 존재하는 사회적 삶을 착취한다는 것이다(Dyer-Witheford & de Peuter, 2009, p. xx).

이처럼 전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공장의 형태로 작동하는 현대 글로벌 자본주의의 경제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 네트워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은 과거 포드주의적 사회에서 물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물질 노동(material labour)'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

하였다면, 이 새로운 제국 체제에서는 '비물질 노동(immaterial labour)'이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의 형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물질 노동'이라는 용어는 라자라토(Lazzarato, 1996)가 앞서 정교화 한 용어로, 라자라토는 '비물질 노동'을 '물질 노동'에 대비하여 "상품의 정보적이고 문화적인 내용을 생산하는 노동"(p. 133)으로 개념화하였다. 비물질 노동의 '정보적(informational)' 측면이 노동과정의 자동화 과정과 결부되어 컴퓨터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지칭한다면, '문화적(cultural)' 측면은 전통적으로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지적 능력을 포괄한다. 라자라토에 따르면, 정보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헤게모니적 노동이 물질 노동에서 비물질 노동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들의 주체성 자체가 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주체성은 생산적인 협력을 만들고, 상품의 문화적 내용을 생산하는 데에 투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라자라토의 비물질 노동 개념은 두 개의 함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나는 '비물질적 상품의 출현과 생산 모드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험들(여가, 개인적 관계)이 더 많은 자본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Taylor, Bergstrom, Jenson, & Castell, 2015, p. 372).

이후, 하트와 네그리는 비물질 노동 개념의 '정동적(affective)' 측면을 추가해서(Hardt, 1999; Hardt & Negri, 2000, 2004), "지식, 정보,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관계나 감정적 반응과 같은 비물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으로 확장한다(Hardt & Negri, 2004, p. 108). 한층 구체적으로, 〈다중(Multitude)〉(Hardt & Negri, 2004)에서 비물질 노동은 크게 두 가지의 주요한 형태, 즉 "지적이거나 언어적인 노동"과 "정동적인 노동"으로 분류되어 정의된다. 전자가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노동과정에서 아이디어, 상징, 코드, 텍스트, 도표, 이미지 등의 생산이 중요해진 것을 함축한다면, 후자는 서비스 산업의 팽창과 함께 편안함, 안락함, 만족감, 흥분, 열정 등과 같은 정동(affect)의 생산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후자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의료 서비스의 돌봄 노동, 연예문화산업에서 정동의 사용, 개인서비스 노동 등이다(Hardt & Negri, 2004, pp. 107～108).

하트와 네그리의 정동 노동 개념에서 한층 중요한 측면은, 정동 노동이 단지 특정한 비물질 상품(즉, 정동)을 생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을 생산하는,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삶 자체를 생산하는 '생체-권력적인 노동'이라는 점이다(Camfield, 2007; Hardt & Negri, 2004; Schultz, 2006).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과 삶의 양식들을 생산해내는 '체화된, 생체권력적인 노동'으로서 갖는 정동 노동의 속성은 하트와 네그리가 '생체권력(biopower)'(Foucault, 1990, pp. 135～145)의 체제를 통해 작동하는 '사회

적 공장'으로 제국을 정의하는 데에 이론적 토대로 작동한다. 이들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국이라는 사회적 공장에서는 생산과 재생산 간의 오래된 분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 오늘날 실제 생산력(the powers of production)은 전적으로 생체 정치적(biopolitical)이다; 즉, 생산력은 생산만이 아니라 재생산 영역 전체를 통해 작동되고 구성된다.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맥락 전체가 자본주의 규칙 아래로 포섭되었을 때, 생체권력은 생산의 행위자(agent)가 된다. 즉, 재생산과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한 관계들 자체가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것이 된다. 생체권력은 사회가 자본에 실질적으로 포섭되는 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다. 실질적 포섭과 생체권력 둘 다 전 지구화된 생산 질서와 동의어다. (Hardt & Negri, 2000/2001, 466쪽)

사실, '정동 노동'이라는 개념은 '재생산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페미니스트 전통에서 연구되어온 주제다. 재생산 노동에 관한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착취의 지점만이 아니라 전복의 지점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페미니스트 논의를 채택하여 하트와 네그리는 정동 노동이 생체권력의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적(communist)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점으로 상상한다(Weeks, 2007). 즉, 자율주의자들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동 노동의 전 지구적 확산과 보편화는 이전에 자본의 가치 생산 과정의 외부에 존재했던 영역으로까지 자본주의적 착취가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생산하는 정동노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저항의 잠재력 또한 확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노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회적 실천들 속에서 정동이 생산되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집단적인 주체성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Virno, 2004; Hardt 1999).

이와 같이,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착취의 확대와 저항의 잠재력을 동시에 주장한 자율주의자들의 '제국'과 '비물질 노동' 이론은 정보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이론으로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이론에 대한 격렬한 비판 또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자율주의 진영의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이러한 비판은 〈제국〉이 출시된 직후 발생한 9 · 11 사태 이후 변화된 국제정치의 맥락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9 · 11 사태 이후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현대 지구적 자본주의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지배하는 탈중심

화되고 트랜스내셔널한 '제국' 개념이 현재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굳건히 지속되고 있는 국민국가의 힘(예: 세계화를 추진하는 힘으로서 미국의 헤게모니)과 남북 간의 위계질서(북반구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남반구)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Dyer-Witheford & de Peuter, 2009, p. xxii). 이 점에서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를 '새로운 제국'이 아니라 지속적인 군사적인 힘들을 통해 유지되는 '오래된 형태의 제국주의의 확장'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이 기존의 제국주의적인 권력 체제와의 단절성을 강조한다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가 확장하는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제국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비물질 노동 개념을 둘러싼 논쟁도 이러한 연속성과 단절성(continuity/discontinuity)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비판가들은 비물질 노동 이론이 오래된 형태의 물질 노동(material labour)의 중요성을 희생한 채, 정보적 노동(informational labour)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다고 비판한다. 자율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비물질 노동의 중요성에 반대해서, 비판자들은 전통적인 산업(혹은 물질) 노동이 여전히 전체 노동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Caffentzis, 1998, 2009; Caffentzis & Federici, 2009; Jeon, 2014; Wright, 2005). 특히, 자율주의 진영 내의 학자들 가운데, 카펜티즈와 페데리치(Caffentizis & Federici, 2009)는 비물질 노동 개념이 노동에서의 동질성을 과대하게 강조하여 다양한 노동과 계급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평평하게 해서, 결국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을 보이지 않게 한다고 비판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축적은 발전과 저발전,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기술 전문지식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을 동시에 구성함으로써 번성해왔다"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캠필드(Camfield, 2007)는 비물질 노동 개념의 비역사적인 측면이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무시해서 다양한 역사적 장소들에 존재하는 노동의 다양성을 탐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정동노동' 개념 또한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주요 논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동노동 개념에서 전제하고 하고 있는 "생산과 비생산 간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생산 개념을 좁은 의미의 경제 개념을 넘어서 확대시킨 점에서, 하트와 네그리의 이론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Camfield, 2007, p. 30), 이러한 생산/재생산 간의 관계의 전환이 지니는 함의를 둘러싸고 커다란 긴장이 존재해왔다. 생산과 재생산 영역 간의 경계에서의 변화와 관련해서, 많은 민속지학적인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행해왔던 정동적 노동이 '재생산적인 무급 노동(reproductive unpaid labour)'에서 '생산적인 유급 노동(productive paid)'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Anderson, 2000; Hochschild, 1983, 2012; Hochschild & Ehrenreich,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 어떻게 재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상업화된 가내 노동이 신경제에서 여성노동의 지구적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인종과 계급에 따라 불균등하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하트와 네그리의 해석과 달리, 이러한 연구들은 재생산영역에 속해 있던 노동들이 생산영역으로 이동하는 전환이 생산적인 유급노동과 비생산적인 무급노동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두 영역 간에 공고하게 지속되고 있는 위계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앤더슨(Anderson, 2000)이 보여주듯, 중간계층 여성들은 생산영역에서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양육(재생산노동)을 외주화한다. 이 빈자리를 메꾸는 이주노동여성은 외주화된 가정노동을 하는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다른 이의 손에 남겨두고 집을 떠난다. 이 점에서, 쉴츠(Schultz, 2006)의 "생산적 / 비생산적 노동 간의 경계가 없어진다기보다, 비생산적 노동이 신자유주의적 노동 구성 과정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쉴츠는 현재 지배적인 여성의 정체성이 가정주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으로의 변화하는 것 또한 이러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chultz 2006: 81).

또 다른 입장에서, 윅스(Weeks, 2007)는 이러한 전환이 노동과 연관되어 복잡하고 모순적인 젠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윅스는 생산과 비생산간의 오래된 구분이 부적절해졌다는 자율주의 이론가 비르노(Virno, 2004)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 이상 재생산 영역이 특정한 젠더와 동일시되기 어려워졌지만, 이와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경제가 공고하게 지속되고 있는 젠더분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재생산 영역이 점점 더 외주화되면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특정 젠더(여성)가 재생산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동일시되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외주화된 상업화된 돌봄 영역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으면, 이 오래된 관념에 기반을 두어 외주화된 재생산 노동 영역의 일은 대부분 저임금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무급노동으로서 재생산 노동에 대한 관념은 여성노동을 착취하는 기반으로 작동하며, 많은 여성주의 노동연구가 증명하듯, 특권이 없는 여성들의 노예, 하인, 성 노동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무급 여성 노동으로 행해지던 많은 활동들이 2000년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핵심 영역이 되어 왔다.

이처럼,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새로운 경제에서 정동노동의 확산이 하트와 네그리가 희망했던 연대에 대한 잠재력을 구성하기보다는, 사회적 삶과 친밀한 삶의 상업화의 확장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4. 새로운 경제의 노동들: 창의 노동, 프리 노동, 디지털 노동, 놀이 노동

이와 같은 비물질 노동과 제국 개념에 대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말에 이르러 '비물질 노동' 개념은 문화연구 분야에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디지털 경제(더 넓게는 후기 문화산업)의 가치생산 과정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사하는 연구에서 유행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Andrejevic, 2009, 2010; Arvidsson, 2005, 2007; Brophy, 2011; Brophy & Peuter, 2007; de Peuter, 2015; Dyer-Witheford & de Peuter, 2009; Kline, Dyer-Witheford, & Peuter, 2003; Taylor et al., 2015; Terranova, 2000, 2004). 이러한 연구들은 2000년대 지배적인 담론으로 떠오른 '창의 경제(creative economy)',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y)', '창의 노동(creative labour)', '창의 계급(creative class)' 개념에 대항하는 대안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비물질 노동 개념의 유행은 '창의 노동'이라는 노동에 대한 지배적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창의성'과 '창의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전 세계 정부들의 추구하는 주요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먼저 영국에서 1997년 선거 이후,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영화, 텔레비전, 디자인, 광고, 소프트웨어, 출판, 패션, 영상예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로 창의 산업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영국 정책 보고서에서 창의 산업은 "개인의 창의력, 기술, 재능을 기반으로, 지적 자산 개발을 통해 부(wealth)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정의된다(de Peuter, 2011, p. 418). 이 정책의 대표적인 고문으로 역할을 했던 플로리다(Florida)가 '창의 산업/경제' 정책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는데(Arvidsson, 2007, p. 8), 그는 현대 사회에서 창의적인 재능을 기반으로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혁신을 이끄는 비물질적 활동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지배적인 계급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을 창의 계급이라고 칭하며, 비물질적인 생산과 혁신에서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로 정의하였다(Florida, 2002).

로스에 따르면, 이러한 창의 경제 논리는 닷컴버블이 무너진 이후 '지식 경제 산업' 논리를 대체하여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작동하였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창의적 경제를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주창하였고, 다양한 국민국가 정부들도 유사한 창의적 산업 정책들을 채택하며, 지식 계급(knowledge class) 담론을 창의 계급(creative class) 담론으로 교체해나갔다(Ross, 2008).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로, 노무현 정부(2003～2006)는 김대중 정부(1998～2002)의 지식기반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창의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그 일환으로 창의적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교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책의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로스는 글로벌 정책으로 창의 경제 논리가 성공한 데에는, "적은 공적자금의 투자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내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권들의 필요가 맞물려 있다"고 주장한다(Ross, 2008, p. 33). 즉, 제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적인 지원과 고가의 기술적 기반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창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제조업과 달리, 창의 산업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창의 산업 정책은 주변화 되어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하려는 자본의 전략에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창의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케인시안 복지국가 시대에 경제 생산에서 주변부를 차지했던, 문화적(혹은 예술적) 노동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 내에서 최전방에 핵심적인 위치를 자치하게 되었고, '창의 노동'으로 새롭게 명명되었다(Ross, 2008, p. 32). 이는 동시에 닷컴버블 이후 담론적인 힘이 약화된 '정보사회'를 새롭게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하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비물질 노동 개념은 창의 산업과 창의 계급의 신화를 깨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예컨대, 아비드슨(Arvidsson, 2005, 2007)은 창의 산업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진짜 원천은 하위문화 씬(scene)에 있는 대다수의 청년 실업자들("창의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이지, 월급을 받는 예술 감독이나 광고 대행자들 같은 (플로리다가 창의 계급으로 정의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창의 계급은 단지 이러한 청년 실업자들의 자발적, 자율적, 창의적인 생산을 자본주의 경제의 가치회로에 연결 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테라노바(Terranova)와 다이어-위더포드(Dyer-Witheford)는 자율주의 이론들을 보완/발전시켜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문화가 어떻게 방대한 저고용(underemployed) 상태의 젊은이들의 참여를 착취하는 디지털 경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사용이 디지털 경제의 생산 메커니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Dyer-Witheford, 1994, 1999, 2005, 2006; Dyer-Witheford & de Peuter, 2009; Kline et al., 2003; Terranova, 2000, 2004).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테라노바는, 자율주의 이론가인 비르노와 라자라토의 논의를 기반으로(Lazzarato, 1996; Virno, 2004, 2007),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지배적 시각 모두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하나는 디지털 경제를 '인간지성(human intelligence)'과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의 네트워킹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제로 보는 시

각이고(Tapscott, 1995), 또 하나는 디지털 경제 속에서 '디지털 예술가(digital artisans)'들이 구성하는 선물경제(gift economy)적 측면을 강조하며 그 안에 존재하는 커뮤니스트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는 시각이다(Barbrook, 1999, 2000). 테라노바는 두 가지 시각이 공통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의 소외된 노동과정의 외부에 형성/존재하는 "새로운 노동자"(자본주의적 지식노동자 혹은 반자본주의적 예술가 노동자)를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 곧바로 기존의 소외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자로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즉, "인터넷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용자를 능동적인 생산자(active producer)로 바꾸거나, 모든 노동자들을 '창의적인 주체'로 전환시키지 않는다"(Terranova, 2000, p. 35)는 것이다. 대안으로, 테라노바는 인터넷 문화의 현실을 생산이 소비(유통)와 통합된, 방대한 양의 저고용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는 후기 탈산업사회의 발전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며, 디지털 경제를 "이용 가능한 거대한 양의 사회적, 문화적 지식을 '포획(capture)'하는 특수한 메커니즘"(Terranova, 2000, p. 38)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지식은 단지 지식 노동자나 창의 노동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의 생산적인 주체성 전체에 속한 것이다. 테라노바는 라자라토의 비물질 노동 개념을 기반으로 이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라자라토는 '비물질 노동'을 '문화적 기술적 활동의 형태'로 정의했는데, 테라노바는 이러한 비물질 노동력이 잠재성(virtuality)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경제의 권력 관계에 대단히 민감한, 결정되지 않은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 고도로 훈련된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젊은 노동자들, 취약한 노동자들, 실업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잠재적(virtual)이다, 즉 이러한 능력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 (Terranova, 2000, p. 41)

디지털 경제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이러한 결정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치생산 과정으로 "돌리는 것"(channel)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테라노바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프리 노동(free labour)'이라고 정의한다. '프리(free)'라는 용어로 그녀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활동이 가치 생산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공짜, 무급 노동(unpaid)'이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강제되지 않은(unimposed)', '자발적인, 그래서 즐거운' 노동이라는 의미다(Terranova, 2000, p. 48).[5)]

테라노바가 비르노와 라자라토 개념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였다면, 다이어-위더포드

는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과 비물질 노동 개념에 더욱 천착하여 디지털 노동을 분석한다(Dyer-Witheford, 1994, 1999, 2005; Dyer-Witheford & de Peuter, 2009; Kline et al., 2003). 그는 비물질 노동 개념에 대한 가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정보적 자본주의에서 변화된 노동의 속성과 계급 구성을 연구하는 데에 대단히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Dyer-Witheford, 2005, 2006), 이 개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물질 노동의 개념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비물질'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두 개의 다른 그룹의 노동자들—'물질(material) 노동자'와 '비참한(immiserated)' 노동자—에 대해 동등한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비물질 노동이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정동적인 활동의 특성을 지녔다면, 물질적 노동은 여전히 상품의 물질성을 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 유형으로… 탈물질화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노동이다; 비참한 노동은 다양한 단계의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고용 상태를 통해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실업자들의 산업예비군까지, 자본에 의해서 필요분의 잉여로 취급되는 노동력이다. (Dyer-Witheford, 2005, p. 155)

즉, 다이어-위더포드(2005)는 '비물질 노동'을 전체 노동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재위치시킬 것을 주장한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 임금, 비임금 노동 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문제로 '비물질성(immateriality)'이라는 개념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p. 155).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는 마르크스의 '유적 존재(species being)'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 유적 존재(species being)은 신체적 · 감각적 · 젠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착근된(embedded) 인간 존재 조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집단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Dyer-Witheford, 2005, pp. 159～160)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켜, 더 최근에, 다이어-위더포드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디지털 경제의 주요한 산업인 게임을 '제국의 미디어(media of empire)'로 주장하고 그 안에서 새

5) Free labour는 한국에서 자유노동(백욱인, 2013), 무임노동(이희은, 2014), 무불노동(김예란, 2014)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프리 노동'으로 표기하였다.

로운 속성의 노동력인 '놀이 노동(playbour)'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Dyer- Witheford & de Peuter, 2009; Kline et al., 2003). 놀이 노동은 쿠클리크(Kücklich, 2005)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게임의 상업적인 가시성과 지속성을 확대시키는 프리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현상을 잡아내며 만든 개념으로, 디지털 게임 이용자를 가리킨다. 프리 노동 개념이 고용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놀이 노동(playbor)는 프리 노동의 개념에서 '즐기면서 하는' 놀이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개념이다.

〈제국의 게임(Games of Empire)〉(2009)에서 다이어-위더포드와 드페터는 하트와 네그리의 제국 개념을 수정하여, 기존의 북남 간의 국제적 위계질서와 권력 불균형이 확장되는 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한다. 게임산업은 유연화, 아웃소싱, 광범위한 취약성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전 지구화된 신자유주의적 노동력 전환의 최첨단에 위치해 있는 미디어 산업이고, 또한 비디오 게임 산업의 형성 과정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게임 산업의 물질적 생산 과정에 얽혀 있는 국제적인 힘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노동력 착취 및 이동 등을 포괄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게임 산업을 '제국의 미디어'로 정의한다. '놀이 노동' 이라는 새로운 노동력의 형성 과정 또한 이러한 물질적 전환 및 권력 관계와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미국의 실리콘 벨리의 게임 산업에서 취약한 노동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수많은 제 3세계 출신의 젊은이들은 자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탈출하여 더 많은 기회를 꿈꾸며 이곳으로 유입되었고, 비디오 게임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버티게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숄츠(Scholz)는 디지털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놀이터이자 공장으로 표현한다(Scholz, 2012).

이처럼 비물질 노동 개념은 디지털 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구글(Goolge)과 같은 디지털 기업들에 의해 어떻게 착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Andrejevic, 2009, 2010; de Peuter, 2015; Ross, 2012; Scholz, 2012; Taylor et al., 2015).

5. 새로운 노동자 주체성과 삶의 취약성

앞에서 기술했듯이 비물질 노동 개념이 디지털 경제,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속성에서의 변화와 경제적 생산 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발전해왔다면, 이러한 비물질 노동이 처해 있는 물질적 조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취약성(precarity)'[6]

개념을 중심으로 진화해왔다. 두 개념 모두 자율주의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기반으로 진화해왔는데, 비물질 노동이라는 개념이 노동의 속성에서의 변화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노동 계급(immaterial labour 혹은 multitude)의 출현을 주장한 반면,[7] 취약성은 그러한 노동자들이 처한 삶의 조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노동 계급, 프리캐리어트(precariat)의 형성을 논한다. 즉, 프리캐리어트는 비물질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노동 계급, 프리캐리어트(precariate)에 대한 논의 또한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이상적 노동자 주체로서 말해지는 '창의 노동자' 담론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프리캐리어트는 후기산업사회에서 확장된 자본주의적 착취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노동 계급으로, 창의적인 기업가 노동자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지배적 주체에 저항하여, 새로운 착취에 저항하는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는 커다란 프로젝트의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이 절에서는 새로운 노동자 주체성과 삶의 취약성에 관한 학문적 논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1) 예술가적 기업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주체

앞서 위더포드가 디지털 노동의 특성으로 지적한 노동과 놀이의 혼재성은 창의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밝혀낸 노동자들의 이중적인 자기인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Lovink & Rossiter, 2007; Ross, 2003, 2009). 이러한 연구들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디지털 스웨트숍(digital sweatshop)'에서 일하지만 그 일을 '즐기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로스는 '예술가'가 창의 산업의 극심한 노동 강도 아래에서 자기훈육(self-discipline)이 가능한 노동자들을 찾는 관리자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자의 모델로 재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술가적 주체의 형성에 관해서 본 오스튼(von Osten, 2007)은 한층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과거에 화가 · 음악가 · 보헤미안들과 같은 예술가 상은 주류 노동력 외부에 위치하는, 근대성의 예외적인 주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주체는 창의 산업 담론들 속에서 정상적이자 헤게모니적인 주체로 구성되었다. 예술가는 이제 혁신적인 삶/노동 스타일과 열정적인 헌신을 가지

6) 국내에서 precarity는 흔히 '불안정성'으로 번역되는데,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 논문에서 나는 precarity를 '취약성'으로 번역한다. 이는 전반적인 삶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살게 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실제 자율주의자들의 '프리캐리어트' 개념은 아감벤의 '벌거벗은 삶'에 대한 논의가 깔려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이 용어가 노동 시장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외부의 힘에 취약해진 변화를 지칭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precarity를 '취약성'을 번역하였다. 다만, 이 개념이 이탈리아 자율주의 진영에서 형성될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는 '프리캐러티'로 표기하였다.

7)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노동 및 계급을 정의한 것은 비물질 노동 개념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고 있는, 스스로 동기 부여되어 있는 생산성의 원천으로 재현되고,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예찬된다. 특히 창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일반인이 자신들의 삶의 기업가로서 따라야 할 롤모델로 작동하였다. 이 '노동자 기업가들'은 '창의적'이 되도록 요구받았고 그들의 삶의 예술가가 되도록 권고받았고,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고, 자신들 스스로에게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았다. 오스틴은 이러한 예술가 주체가 '자기-취약화(self-precarization)'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예술가에 대한 낭만화된 이미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적 작업 과정에 대한 신화가, 노동과 삶이 더 여유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유목민적인 삶(normadic life)에 대한 환상이 부여되어 있는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오스틴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와 같은 미학적 측면(esthetic dimension)을 획득함으로써 온전히 실현된다"고 주장한다(von Osten, 2007).

로레이(Lory, 2006)는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진 자기 취약화 과정을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당시 페미니스트, 환경주의자, 좌파적 집단들이 국가, 학교, 가족제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들은 포드주의의 정상성(normality)에 대항하여, 정상적인 삶/노동 조건과 구별되는 삶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저고용(underemployment)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노동과 삶 간의 균형을 찾고자하였다. 로레이는 이러한 시도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는 자본에 의해 활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과거 30~40년 동안 사회운동에서 이루어진 실천들과 담론들은 정상화(normalization)에 저항하고 불복정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통치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일부분이었다"고 주장한다(Lorey, 2006).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창의적 산업에 대한 비판적 접근들은 '예술가 주체'의 신화를 해체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들은 실제 창의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냄으로써, '창의 산업' 및 '창의 노동자' 개념이 이 영역들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취약한 고용 상태를 무시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Lovink and Rossiter, 2007). 2000년대 중반, 이러한 연구들은 자율주의 전통에서 발전한 '취약성(precarity)' 개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유럽의 사회운동 진영과 긴밀하게 엮이기 시작하였다(de Peuter, 2011, p. 418).

2)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프리캐리어트(Precariat)

'프리캐러티(precarity)'이라는 용어는 처음 이탈리아에서 근대화와 유럽화 과정에서 불안

정(혹은 '유연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용되기 시작하였다(Andall, Puwar, & the Italian Group, 2007).[8] 이탈리아에서 1990년대 공공 영역에서 대체교사들이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프리캐러티라는 용어는 이전의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대체교사들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하면서, 대체교사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이 용어는 정치적인 함의를 획득하게 된다. 당시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자신들을 낙인찍는 데에 사용되었던 '게이(gay)'나 '퀴어(queer)'와 같은 단어들이 가져와서 역으로 스스로를 명명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전유했던 전략을 따라, 이탈리아 운동가들도 프리캐러티라는 단어를 전유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Fantone, 2007, p. 2), 이 무렵 프랑스 주류 사회학에서도 실업자와 임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등장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브루디외(Bourdieu, 1999)의 '취약한 세대(precarious generation)' 논의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이 용어는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운동과 토론의 중심에서, 유럽 좌파 영역을 움직이는 모토가 되었고, 특히 반세계화 운동가들의 핵심 슬로건이 되었다(Ross 2008: 41).[9] 이 운동에서 'precarity'는 "모든 형태의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않은, 유연한 착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법적, 계절적, 임시 고용에서부터 가내노동, 계약노동,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Precarious'는 위협하는, 위험을 생산하는 안전(security)과 안정성(stability)의 결여를 가리키고, 'precarious labour'(혹은 'precariats')는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유연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정보 혹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 계약과 일정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Andall et al., 2007). 이처럼 이러한 운동에서 precarity는 고전적인 포드주의 고용 조건들(평생직업, 평생고용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정체성, 예측 가능한 스케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반복적인 육체적 노동, 실업 기간 동안 지원되는 복지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Brophy & Peuter, 2007, p. 180). 이러한 취약한 노동자(precarious labour)는 자본주의 역사를 관통하며 지

8) Precarity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 precarieta를 영어로 번역한 신조어로(프랑스어로는 precarite로 번역된다), Precarieta는 '기도하다'(to pray)를 의미하는 라틴어 'preco-preaece'에서 기원한 단어로, 취약한(precarious)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의존하는 것을 강조한다(Andall et al. 2007).

9) 일례로, 취약성에 저항하는 유로메이데이 운동이 2001년 밀라노에서 시작되어 2005년까지지 18개 유럽도시로 퍼져나갔는데(Neilson & Rossiter, 2008, p. 53), 이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수십만의 사람들(대부분 젊은이들)이 유럽 대륙의 도시들의 거리를 점거했다(Standing, 2011, p. 2).

속적으로 존재해왔지만, 최근의 변화는 임금이 높은 상층 노동자들이 '취약한 노동자' 집단으로 편입된 것이다. 따라서 브라피와 드페터는, 새로운 것은 이러한 노동 조건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일반화되는 정도"이고, 이러한 취약한 고용은 전 계급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연속체(continunm)'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ophy & de Peuter, 2007).

라자라토, 하트, 네그리와 같은 자율주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광범위하게 공유된 취약성이 자본주의 착취의 확장이자 새로운 정치가 탄생하는 지점으로 보았다. 앞서 기술한 자율주의 계급 구성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이들은 프리캐리어트의 형성을 1968년 이후 정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산업사회 노동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해석한다. 즉, 임시 고용은 부분적으로는 노동 쟁의들을 통해 인상된 임금 압박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자, 부분적으로는 부모세대들이 참고 견디었던 종류의 노동 패턴을 거부한 '68 세대'의 반응으로 해석한다(Brophy & Peuter, 2007, p. 180). 자율주의자들은 공유된 삶에서의 불안전성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된 프리캐리어트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프리캐리어트는 취약한 노동 조건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비물질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율주의 이론가들은 광범위하게 퍼진 공유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계급 간의 연대의 가망성을 강조한다(Ross, 2008). 이러한 시각은 당시 반세계화 운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값싼 비용으로 전 세계적인 연대를 구성하였던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가지게 된 희망적인 전망이기도 하였다. 즉,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보적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말단 노동자로 분산시키는 데에 활용되었던 정보통신기술이 역으로 이에 저항하는 연대와 움직임을 구성하는 데에 활용되었기 때문이다(1999년 시애틀의 반세계화 운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한 대표적인 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리캐리어트 운동 자체는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이 문제는 유럽의 주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Mute, Fibreculture Journal, ephemera*와 같은 온라인 오픈 저널들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엄밀한 학문적 토론이 이루어졌다(Neilson & Rossiter, 2008, pp. 52～53). 정치적 주체로서의 프리캐리어트(precariat) 개념을 둘러싼 가장 주요한 우려는 이 개념이 가정하고 있는 보편주의(universalism)이다(Fantone, 2007; Mitropoulos, 2005; Neilson & Rossiter, 2005, 2008). 넬슨과 로지터(Neilson & Rossiter, 2008, p. 54)는 프리캐리어트 논의가 미국과 유럽을 배경으로 전제하여 프리캐러티를 포드주의 혹은 케인즈주의적 규범(norm)에 반하여 만들어진 예외적 현상으로 그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역사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규범은 포드주의적인 안정고용 형태가 아니라 '프리캐러티'이었음

을 강조한다. 즉, 포드주의의 안정적인 고용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이러한 안정 고용 또한 '거대한 양의 여성들의 가내 무급 노동과 식민지에서 극단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을 기반으로 작동하였다(Mitropoulos, 2005)는 것이다. 넬슨과 로지터는 이것이 프리캐러티 운동이 서유럽 밖으로 확장하여 전지구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로 본다. 즉, 복지국가에서 후기포드주의 노동 체계로의 일시적 전환이 이루어졌던 서유럽에서 프리캐러티 운동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반면, 취약한 노동 조건들이 정상화되어왔던 홍콩, 중국 등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950년대 포드주의 체제가 받아들여졌던 일본에서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리캐러티 운동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p. 56).

또 다른 한편으로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프리캐러티 운동이 지니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경향을 비판한다. 팬톤(Fantone, 2007)은 밀라노, 스페인, 파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프리캐러티 운동이 서구의 남성 노동자들이 새로운, 후기 산업주의의, 유연한 노동 시장의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하며, 이 운동이 상상적인 정치적 주체로 '미혼의, 남성 도시 노동자'를 가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 이 주체는 전반적으로 북부 이탈리아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들로, 특히 체인점이나, 고객 전담 전화 서비스, 혹은 대형 창고 등의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남자들에 조응한다. 이러한 시각은 상상적인 정치적 주체를 가정하고 있다. 미혼의, 남성, 도시 예술가 혹은 창의적 노동자가 프리캐러티 운동의 선봉에 서있는 주체로 이상화되었다. 이 (상상적) 주체는 외곽 지대에 살면서 가족들을 돌보고 쇼핑을 하며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에 관여하고 있는, 나이 들어가는 주부상과 대조된다. (Fantone, 2007, p. 9)

팬톤에 따르면, 이러한 젊은 도시 남성 중심적으로 취약성(precariousness)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들과 정동 노동과 재생산 노동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거친 후, 유로 메이데이 프리캐리어트 운동은 체인점의 젊은 남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육아 휴직과 같은 여성들의 구체적인 권리들에 관한 이슈들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이상화된 상상적 주체는 프리캐러티의 지배적 이미지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Fantone, 2007, p. 9).

3) 취약성, 일상생활, 경험 (Precarity, everyday life, and embodied experience)

취약성의 경험과 의미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포착하려는 시도 속에서 프리캐러티라는 용어는 신자유주의적인 삶의 전반적인 조건(condition)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Fantone, 2007; Neilson & Rossiter, 2005, 2008; Tsianos & Papadopoulos, 2006).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버틀러(Butler)의 'precariousn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넬슨과 로지터는 프리캐러티의 의미를 노동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로 확장시킨다. 버틀러는 9 · 11 사태 이후 미국 사회의 변화를 목격하며, '외부 힘들(external forces)에 취약함'을 인간의 존재론적(ontological) 조건으로 인식/규정하며, 이를 'precariousness'라는 용어로 개념화한다(Butler, 2004). 넬슨과 로지터는 버틀러의 개념을 접목하여 프리캐러티를 "커먼(the common)의 정치적 구성에 기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경험과 사회-경제적 조건"(Neilson & Rossiter, 2005)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중요한 것은 프리캐러티를 둘러싼 논의들과 행동들에서 창의적 노동자상을 이주민 혹은 여성 돌봄노동자 인물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 실천들을 하나의 묶을 수 있는 범주(a composite category) 속으로 합치는 것도 아니다. […] 프리캐러티는 모델 노동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술가나 이주민도 아니고 해커나 주부도 아니다. 프리캐러티는 모든 노동 실천들 속에 퍼져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관계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즉, 본질적인 관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들 속에 끊임없이 열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캐러티는 노동시장의 스펙트럼과 위치들을 가로지르며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의 특정한 위치 이상의 무엇이다. (Neilson & Rossiter, 2005, p. n.p.)

이와 유사하게, 치아노스와 파파도풀로스(Tsianos & Papadopoulos, 2006)는 삶에서 시간 차원에서 확장되는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서, 후기포드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의 의미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시간의 차원에서 착취를 확대시키고 있는 지점으로 프리캐러티를 정의한다.

> 프리캐러티는 비물질 생산이 사회 시스템의 위기와 만나는 지점이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 노동은 노동시간이 아닌 것으로 통합되고, 노동력의 착취는 노동 범주 너머에서 이루어지며, 삶 전체의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배치된다. 프리캐러티는 단순히 노동력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연속체(the continuum of everyday life)를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프리캐러티는 시간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착취의 형태다. (Tsianos & Papadopoulos, 2006, p. n.p.)

이들은 프리캐러티가 "다양한 시간의 축 사이에서 쉼 없이 움직이는 체화된 경험"으로 "연속되는 삶의 시간에서 조직되는 취약한 노동자(precarious living labour)의 존재론적 조건"이라고 정의한다(Tsianos & Papadopoulos, 2006, p. n.p.).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출발점은 비물질 생산이 아니라 주체의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의 물질화(materialization)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프리캐러티의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을 탐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체화된 경험은 취약성(vulnerability, 어떠한 형태의 보호 없는 유연화), 과도한 활동성(hyperactivity, 끊임없이 일할 준빈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 동시성(simultaneity, 동시에 다양한 일시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Tsianos & Papadopoulos, 2006).

또 다른 차원에서, 팬톤(2007)은 프리캐러티 담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universalism)을 비판하며 프리캐러티가 지리적 장소(국민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경험될 뿐만 아니라, 비록 동일한 지리적 장소에서도 젠더와 세대에 따라 다르게 경험됨을 강조한다. 일례로, 그녀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취약성은 많은 젊은 여성들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것은 단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효과만이 아니라 (또한 온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삶의 조건이다"(p. 5). 따라서 팬톤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관련된 프리캐러티가 그들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그다지 유연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들(이성애적 결혼, 모성, 돌봄 노동 등)에서 기인하는 취약성들과 어떻게 얽혀 짜여 있는지 연구할 것을 주장한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오래된 양식의 불안정성과 취약한 고용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왔고 여전히 이탈리아에 지속되고 있는지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오래된 형태의 취약성이 굳건히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는 게 중요한다. 특히 오래된 취약성이 유연한 노동 계약으로 도입된 새로운 취약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남부에서 더 중요한다. 간단히 말하면, 프리캐러티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많은 세대의 여성들에게 영구적이고 전통적인 삶의 특징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 없는 하청노동, 암시장, 불법 경제(어떠한 보장이나 권리도 없는 곳), 일과 집안일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보장 없이 가족 관계를 통해 비공식적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가족 자기착취의 형태를 띠어왔다.

덧붙여, 팬톤(2007)은 프리캐러티를 인식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세대 간의 차이를 지적한다. 이탈리아 북부와 중앙 부분에 살고 있는 이전의 두 세대들은 포드주의 고용 모델 체제에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장을 받았는데, 이 두 세대가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 이 문제는 "그들이 최근에 획득한 중간 계층의 특권의 예상치 못한 상실"을 의미하는 반면에(pp. 10～11), 젊은 세대들에게 취약성은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를 의미한다(p. 6)는 것이다.

취약성을 둘러싸고 진행된 치열한 학문적인 논쟁들은 한국의 삶/노동의 취약성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프리캐러티'와 관련된 문제는 2007년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고, 같은 해 출간된 〈88만원 세대〉(박권일 · 우석훈, 2007)의 이례적인 히트로 인문사회분야의 인기 주제로 떠올랐고, 이후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란도, 2010) 등과 같은 후속 베스트셀러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는 특히 '세대 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프리캐러티 운동이 초기 젊은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반면, 한국의 담론은 이전 세대에 의해 촉발되고 주도되어온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좌파진영에서는 자기계발에만 함몰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취약한 노동조건과 실업문제에 대항하여 집단적인 정치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구성하려고 시도했고, 우파진영에서는 취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창의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열정적인 기업가적 주체'로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두 입장이 비록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진영 모두 동일하게 젊은 대학생/대졸 남성을 상상적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전자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정치적 주체'로 역할을 했던 '남성 대학생'(대부분의 필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후자는 산업화시기에 한국경제를 일으키는 핵심노동자로 역할을 했던 대졸남성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전 세대의 인식 속에서, '대학생/대졸 남성'이라는 집단은 당연히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았던 특권적인 집단으로,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곧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학력 남성대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취약한 세대' 담론은 이를 생산하고 있는 세대가 자신들이 이루어낸 중산층으로의 계급 상승을 자신의 자식세대가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은 젊은 세대보다 그들의 부모세대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젊은 세대로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이후, 젊은 세대에 속하는 필진들이 이에 대항하는 글로, 자신이 속한 세대의 문제에 대한 글을 출판했지만(엄기호, 2010; 한윤형, 2013; 최대섭 · 한윤형 · 김정근, 2011), 여전히 고학력, 남성 중심적인 상상적 주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한

국에서 이루어져온 프리캐러티와 관련된 논의들 속에서 저학력/여성들의 경험이 거의 배제된 채 이루어져왔다. 또한, 취약한 삶에 대한 논의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조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이것이 전 세대를 가로질러 작동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만의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6. 나가며: 연대의 기반으로서의 취약성

이제까지 기술했듯이, '비물질 노동'과 '취약성'은 두 개념은 이론적으로 대단히 긴밀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리된 영역에서 논의되어왔다. 특히 미디어 연구 진영에서 '비물질 노동'은 디지털 경제와 연결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개념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반면에, '취약성'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비물질 노동자', '프리캐리어트'는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노동의 재구성 과정에서 구성되는 새로운 노동 계급을 지칭하는 단어로,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하는 한 쌍의 개념으로 비물질 노동자의 삶의 조건이 프리캐리어트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수많은 비물질 노동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취약성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약성은 또한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에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크게 기술, 노동,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얽혀 있는 것이며, 다양한 지역 · 성별 · 집단에 따라 다른 형태로 일상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비물질 노동 및 취약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포드주의적인 노동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던 서구사회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는 포드주의 노동 시스템을 적용시킨 범위가 대단히 한정적인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 사회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광범위한 노동집약적 산업과 그곳에서의 노동착취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에서 일해 온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취약성'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오래된 익숙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구성되는 '취약성'을 더욱더 잘 이해하려면, 전통적으로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했던 집단의 사람들(여성을 포함한)을 포함한, 한층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의 특수성 혹은 보편성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경험 속에 오래된 형태의 취약성이 유연한 노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확산된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이는 직장/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취약성은 다양한 세대별, 계층별, 성별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혹은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경험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취약성'을 한 세대나 계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와 전 계급을 관통하며 구성되는 연속체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취약성이 어떻게 현재 젊은 세대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를 구성하고 있는지, 중산층이 경험하고 있는 취약성이 어떻게 하층 계급의 취약성과 연결되는지,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취약성의 확산이 여성들의 삶의 취약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취약성을 협상하며 특정한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등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험들과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집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또한 이러한 과정의 일부분으로 파악/이해될 때 한층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특히 취약성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가망성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탐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빈곤층 혹은 워킹푸어 개념과 차별될 수 있는 프리캐리어트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이 개념이 세대 · 연령 · 젠더를 가로질러 확산되어 있는 취약성이 이러한 집단들 간의 차이를 넘어선 새로운 계급 정체성과 연대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버틀러가 지적하듯, 취약성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다. 우리는 모두 취약하다, 고로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자 연대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동해왔다(일례로, 유아의 극단적인 취약성은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유아와 엄마 간의 압축된 친밀성과 연대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취약성에 대한 저주는 자칫 의존적인 존재에 대한 경멸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성의 확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러한 취약성의 경험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에 대한 성찰과 연대들을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일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경험들이다. 우리의 삶은 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조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그리고 모순된 삶의 결들을 만들어나가며 살아간다. 나는 이러한 연구 작업들이 우리가 경쟁을 넘어서 협력과 연대를 기초로 작동하는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논문이 그러한 작업들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 문헌

김란도 (2010).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 쌤앤파커스.

김예란 (2009). '참여'의 디지털 문화산업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406-428.

김예란 (2015). 디지털 창의노동: 젊은 세대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에 관한 한 시각. 〈한국언론정보학보〉, 69호, 71-110.

박권일·우석훈 (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

박진우 (2011). 유연성, 창의성, 불안정성. 〈언론과 사회〉, 19권 4호, 41-87.

백욱인 (2013). 〈정보자본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이희은 (2014). 디지털 노동의 불안과 희망.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211-241.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파주: 푸른숲.

한윤형 (2013).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서울: 어크로스.

한윤형·최대섭·김정근 (2011).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명령: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Andall, J., Puwar, N., & the Italian Group (2007). Editorial: Italian feminisms. *Feminist Review, 87*, 1-4.

Anderson, B. (2000). *Doing the dirty work?: The global politics of domestic labour*. London, UK: Zed Books.

Andrejevic, M. (2009). Exploiting YouTube: Contradictions of user-generated labor. *The YouTube Reader, 413*.

Andrejevic, M. (2010). Surveillance and alienation in the online economy. *Surveillance & Society, 8*(3), 278-287.

Arvidsson, A.. (2005). Brand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Culture, 5*(2), 235-258.

Arvidsson, A. (2007). Creative class or administrative class? On adverstising and the 'Underground'. *Ephemera, 7*(1), 8-23.

Barbrook, R. (1999). The high-tech gift economy. In J. Bosma et al. (Ed.), *Readme! Filtered by nettime: ASCII culture and the revenge of knowledge* (pp. 132-138). Brooklyn: Autonomedia.

Barbrook, R. (2000). Cyber-communism: How the Americans are superseding capitalism in cyberspace. *Science as Culture, 9*(1), 5-40.

Barry, A., & Slater, D. (2002). Introduction: The technological economy. *Economy and Society, 31*(2), 175-193.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NY: Basic.

Bourdieu, P. (1999). Job insecurity is everywhere now. *Acts of resistance: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rket* (R. Nice, Trans.). New York, NY: New Books.

Bowring, F. (2004). From the mass worker to the multitude. *Capital & Class, 83*, 101-132.

Braverman, H.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Y: Monthly Review Press.

Brophy, E. (2011). Language put to work: Cognitive capitalism, call center labor, and worker inquiry.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35*(4), 410-416.

Brophy, E., & Peuter, G. (2007). Immaterial labour, precarity, and recomposition. In V. Mosco (Ed.), *Knowledge work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pp. 177～191): Lexington.

Butler, J. (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UK: Verso.

Caffentzis, G. (1998). *The end of work or the Renaissance of slavery: A critique of Rifkin and Negri*.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ization from Below, Duke University.

Caffentzis, G. (2009). From the *Grundrisse* to *Capital* and beyond: Then and now. *Workplace: A Journal for Academic Labor, 15*, 59-74.

Caffentzis, G., & Federici, S. (2009). Notes on the edu-factory and cognitive capitalism. In The Edu-factory Collective (Ed.), *Toward a global autonomous university: Cognitive labor,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exodus from the education factory*. New York: Autonomedia.

Camfield, D. (2007). The multitude and the kangaroo: A critique of Hardt and Negri's theory of immaterial labour. *Historical Materialism, 15*, 21-52.

Chae, S. J. (2016). *Negotiating precarious lives: Young women, work, and ICTs in neoliberal South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Sussex, UK.

Charusheela, S. (2011). Where is the "Economy"? Cultural studies and narratives of capitalism. In P. Smith (Ed.), *The renewal of cultural studie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Dalla Costa, M., & James, S. (1972). *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Petroleuse Press.

de Peuter, G. (2011). Creative economy and labor precarity: A contested converg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35*(4), 417-425.

de Peuter, G. (2015). Online games and counterplay.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Digital Communication and Society*. John Wiley & Sons, Inc.

Drucker, P. (1957). *Landmarks of tomorrow*. New York: Harper.

Dyer-Witheford, N. (1994). Autonomist Marxism and the information Society. *Capital and Class, 52*, 85-125.

Dyer-Witheford, N. (1999). *Cyber-Marx: Cycles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technology capital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Dyer-Witheford, N. (2005). Cyber-Negri: General intellect and immaterial labour. In T. S. Murphy & A.-K. Mustapha (Eds.), *Resistance in practice: The philosophy of Antonio Negri*. London: Pluto Press.

Dyer-Witheford, N. (2006). *The circulation of the common*. Paper presented at the Immaterial Labour, Multitudes and New Social Subjects: Class Composition in Coginitive Capitalism, King's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Dyer-Witheford, N., & de Peuter, G. (2009). *Games of empire: Global capitalism and video gam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Fantone, L. (2007). Precarious changes: Gender and generational politics in contemporary Italy. *Feminist Review, 87*, 5-20.

Florida, R. L.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Foucault, M. (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1: An introduction* (Robert Hurley, Trans.). New York: Random House.

Hardt, M. (1999). Affective Labor. *Boundary 2, 26*(2).

Hardt, M., & Negri, A. (2000).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윤수종 (역) (2001).

〈제국〉. 이학사.
Hardt, M., & Negri, A. (2004).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Hochschild, A. R. (2012). *The outsourced self: Intimate life in market times*. New York: Metropolitan books.
Hochschild, A. R., & Ehrenreich, B. (Eds.). (2003).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London: Granta.
Huws, U. (2003). *The making of a cybertariat: Virtual work in a real world*.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Huws, U. (2014). *Labor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The cybertariat comes of ag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Jeon, H. (2014). Cognitive capitalism or cognition in capitalism? A critique of cognitive capitalism theory. *Spectrum*, 2(3), 90-117.
Kline, S., Dyer-Witheford, N., & Peuter, G. (2003). *Digital play: The interaction of technology, culture, and marketing*. Quebec City: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Kücklich, J. (2005). Precarious playbour: Modders and the digital games industry. *The Fiberculture Journal, 5*.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azzarato, M. (1996). Immaterial Labor. In Paolo Virno & Michael Hardt (Eds.), *Radical Thought in Italy: A Political Politic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Lorey, I. (2006). Governmentality and self-precarization: On the normalization of cultural producers. *Transversal.* Retrieved from http://eipcp.net/transversal/1106/lorey/en
Lovink, G., & Rossiter, N. (Eds.). (2007). *My creativity reader: A critique of creative industries*. Amsterdam: 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Machlup, F. (1962).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ndel, E. (1976) Introduction (to Appendix: Results of the immediate process of production). In K.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p. 943-947). Penguin Books.
Marx, K. (1973).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M. Nicolaus, Trans.). Penguin Books.
Marx, K. (1976).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B. Fowkes, Trans.). Penguin Books.
Mckercher, C., & Mosco, V. (Eds.). (2007). *Knowledge work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Lanham, MD: Lexington Books.
Mitropoulos, A. (2005). Precari-us? . *Mute-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2(0).* Retrieved October, 2010, from http://www.metamute.org/en/Precari-us
Neilson, B., & Rossiter, N. (2005). From precarity to precariousness and back again: Labour, life and unstable networks. *The Fibreculture Journal, 5*.
Neilson, B., & Rossiter, N.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51-72.
Ross, A. (2003). *No collar*. New York, NY: Basic.

Ross, A. (2008). The new geography of work: Power to the precarious?.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31-49.

Ross, A. (2009). Introduction. *Nice work if you can get it: Life and labor in precarious times* (pp. 1-12).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Ross, A. (2012). In search of the lost paycheck. In T. Scholz (Ed.), *Digital labou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pp. 13-32).

Scholz, T. (Ed.). (2012). *Digital labo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Routledge.

Schultz, S. (2006). Dissolved boundaries and "affective labor": On the disapprearance of reprductive labor and feminist critique. In *Empire. Captialism, Natuer, Socialism, 17*(1), 77-82.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dangerous new class*.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Tapscott, D. (1995). The digital economy: Promise and peril in the age of networked. *Intelligence*, 291.

Taylor, N., Bergstrom, K., Jenson, J., & Castell, S. (2015). Alienated playbour: Relations of production in EVE online. *Games and Culture, 10*(4), 365-388.

Terranova, T. (2000). Free Labor: producing culture for the digital economy. *Social Text 63, 18*(2).

Terranova, T. (2004). *Network culture: Politics for the information age*. London: Pluto Press.

Thoburn, N. (2001). Autonomous production? On Negri's 'new synthesis'. *Theory, Culture & Society, 18*(5), 75-96.

Tsianos, V., & Papadopoulos, D. (2006). Precarity: A savage journey to the heart of embodied capitalism. *Transversal.* Retrieved from http://eipcp.net/transversal/1106/tsianospapadopoulos/en

Virno, P. (2004). *A grammar of the multitude: For an analysis of contemporary forms of life.* Semiotext (E).

Virno, P. (2007). General intellect. *Historical Materialism, 15*(3), 3.

von Osten, M. (2007). Unpredictable outcomes/ unpredictable outcasts: A reflection after some years of debates on creativity and creative industries. *transversal.* Retrieved January, 2011, from http://eipcp.net/transversal/0207/vonosten/en

Weeks, K. (2007). Life within and against work: Affective labor, feminist critique, and post-Fordist politics. *ephemera, 7*(1), 233-249.

Wright, S. (2005). Reality check: Are we living in an immaterial world. *Mute, 2*(1). Retrieved October, 2007, from http://www.metamute.org/en/Underneath-the-Knowledge-Commons

투고일자: 2016. 7. 31. 게재확정일자: 2016. 9. 21. 최종수정일자: 2016. 9. 25.

Technology, Labour, and Precarious Lives

A Theoretical Refle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Immaterial Labour and Precarity

Suk Jin Chae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Sungkonghoe University

Drawing on the autonomist Marxist concepts of 'social factory', 'immaterial labour', and 'precarity',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d nature of labour, life and social relations in contemporary informational capitalism. More specifically, it first traces back to the early autonomist (operasimo) theories of 'social factory' and 'class composition' and then discusses how these earlier theories were developed into the concept of 'immaterial labour' by a group of later autonomist theorists such as Paolo Virno, Maurizio Lazzarato, Micheal Hardt, and Antonio Negri. Then, it reviews how the concept of immaterial labour was taken up to understand the nature of labour in digital economy within the tradition of Cultural Studies, closely intersecting with the critiques of 'creative labour'. Finally, it discusses how the changed nature of labour is interrelated with the neoliberal labour forces transformations such as casualization of employment and increasing insecurity in employment and life, which the autonomist explores with the concept of 'precarity', the material condition of immaterial labour.

KEYWORDS Immaterial Labour, Precarity, Autonomist Marxism, Social Factory, Digital Labour, Free Labour